

내가 느낀 일본

김찬솔

처음 홈스테이의 파트너와 만나서 전차로 홈스테이 집을 향해 갈 때, 파트너와 그 친구들은 가던 길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들 한국인에게 성을 보여주겠다며 “岸和田城(키시와다성)”에 데리고 가주었다. 보통의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중 갑자기 굉장히 멋진 성이 나타나서 모두 놀래며 사진을 찍었다. 여기서 큰 축제도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자니 전통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오사카, 그리고 일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날은 “節分(절분, 입춘의 하루 전 날;세쯔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 할 즐거운 경험을 했다. 먼저 저녁 식사 때 한국의 ‘김밥’과 굉장히 닮은 음식인 ‘まきずし(마키즈시)’를 먹는데, 반드시 북북서쪽을 향해 말 없이 먹어야 했다. 부엌쪽을 향해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묵묵히 마키즈시를 먹었다. 그 다음, 홈스테이 파트너의 아버지를 도깨비로 두고 바깥에서 콩을 던지면서 “도깨비는 가고 복은 와라!”라고 외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러고는 여러가지 추억을 만들고, 가족과 코타츠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 가족들끼리의 사이가 좋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바깥에서 보이는 일본의 모습은 ‘친절하지만 차갑다’란 느낌이었지만, 홈스테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한 후에, 일본 안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다.

